

건축문화 **사조상**

Vol.003 10. February 2010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광주광역시건축사회 News 2010.02

003호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동 694-10 T 062,521,0025 F 528,0026



gwangju

Ⓐ 501,28 ㎢ Ⓐ 13,6 ℃
 Ⓒ 1,423,460 명 Ⓒ 1,269 mm



mokpo

Ⓐ 49,34 ㎢ Ⓐ 13,6 ℃
 Ⓒ 244,801 명 Ⓒ 1,166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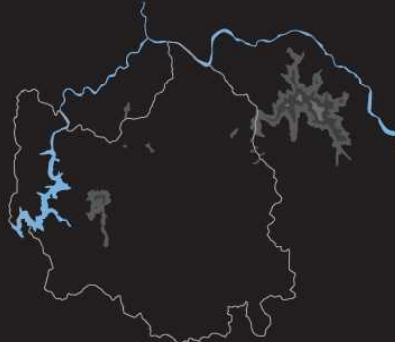
yeosu

Ⓐ 501,3 ㎢ Ⓐ 14,1 ℃
 Ⓒ 293,322 명 Ⓒ 1,407,5 mm



naju

Ⓐ 608,15 ㎢ Ⓐ 13,2 ℃
 Ⓒ 90,875 명 Ⓒ 1,407 mm



suncheon

Ⓐ 907,4 ㎢ Ⓐ 12,5 ℃
 Ⓒ 271,961 명 Ⓒ 1,487,6 mm



gwangyang

Ⓐ 450,06 ㎢ Ⓐ 13,7 ℃
 Ⓒ 139,735 명 Ⓒ 1,296 mm



jeonju

Ⓐ 206,22 ㎢ Ⓐ 12,9 ℃
 Ⓒ 635,007 명 Ⓒ 1,296,2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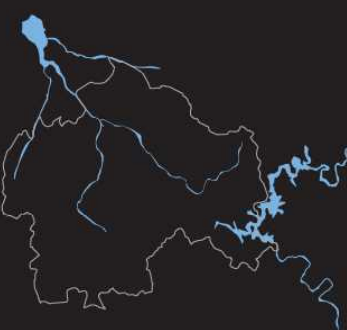
gunsan

Ⓐ 675,45 ㎢ Ⓐ 12,6 ℃
 Ⓒ 266,922 명 Ⓒ 1,201,4 mm



namwon

Ⓐ 753 ㎢ Ⓐ 12,2 ℃
 Ⓒ 89,898 명 Ⓒ 1,313,7 mm



jeongeup

Ⓐ 692,93 ㎢ Ⓐ 12,3 ℃
 Ⓒ 126,524 명 Ⓒ 1,286,2 mm



gimje

Ⓐ 544,99 ㎢ Ⓐ 12,8 ℃
 Ⓒ 98,740 명 Ⓒ 1,284 mm



iksan

Ⓐ 507,06 ㎢ Ⓐ 13 ℃
 Ⓒ 316,811 명 Ⓒ 1,250 mm

인터뷰/건축인과의 만남

광주광역시 총합건설본부 장석근
 광주를 화석도시에서 녹색도시로 만들어가자_김후진

세계경기/작품소개

영암군민체육센터
 제13회 광주광역시건축상

시론/문화유산

무형유산과 도시문화 환경 공동체
 빛고을의 아원을 깨우는 언더 임플란트 송인동

조경이야기

조경과 건축의 근원관계_조동범
 광주건축사회 「독거노인 집짓기 사랑나눔 봉사활동」
 대학소개/대학소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문화유산 소개

무등산 사랑과 도시 문화 환경



양동현 건축사
(주)건축사사무소 AD그룹 대표
광주대학교 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어느 도시나 문화환경은 과거와 미래의 매개체로써 발전해 간다. 도심은 도심대로 도심 밖 외곽지는 외곽지대로 추억이 묻어있고, 매력적인 삶의 깊이를 가지고 문화 환경으로 발전해 간다. 빛고를 광주는 역사의 흐름과 삶의 의미를 깨우쳐가며 진정한 인간근본과 함께하는 '광주다움'의 문화로 거듭나려고 한다.

광주는 내륙 도시이며 가까이에 무등산이 있다. 명산으로 많은 사람들의 무등산 사랑은 남다르다. 어머니의 품 같기에 모두들 좋아한다. 새해를 맞이하여 안녕과 용기와 희망의 장소로서 무등산 자락마다 산행객들로 북적인다. 이곳을 광주시민의 여유로움, 문화예술, 농토문화의 발상지로 인지하고 있다. 그러기에 타 도시 사람들도 찾아와 광주를 부러워한다.

해방 후 딸감나무꾼, 산나물 캐는 아낙네, 사찰에서 들려오는 목탁소리, 가을이면 학생들의 소풍놀이 행렬이 장관을 이루기도 했다.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된 80년대는 시민들의 휴양지이고, 흐르는 계곡물이 피서지였으며, 준비한 닭요리 집, 돼지머리고기를 안주삼아 먹는 동동주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어 좋았다. 옥할머니 보리밥집이 보릿고개 시절을 생각나게 하고, 산사 찻집의 정취는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지역 사람들의 정서는 삶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자연환경에서 자연스레 사랑의 마음이 싹트기도 한다.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상징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발전해 간다. 늘 변화되고 있다. 또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허술한 건물은 음식 절로 분장되고 음식 맛도 변하고 있다. 옛길의 포장되고 돌다리가 철다리로 변하여 녹슬어간다. 이럴 땐 정겨운 추억이 화가 나고 무등산 사랑이 부끄러워 지기도 한다. 변화하는 것이 문화발전이라면 생각이 변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무등산 입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다행히 보기 싫은 건물이 헐리고 주거지, 상가, 주차장은 현대화 되고 있다. 지역 특성 회복, 보존과 변화의 조화, 거리 풍경의 정비에는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현지 주민들의 생각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환경의 생명력과 시각적, 심리적인 가치관 형성에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들도 다양하다.

하, 아, 아직 남아 있는 무등산장, 원효사, 중심사, 문민정사, 약사사, 산방, 미술관 등 역사적 유산의 보존을 잘 해야 한다.

들, 유산이 될 만한 녹지밭, 담장과 석축, 징검다리, 수목 등을 창조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셋, 추억의 장소와 명소화가 될 수 있는 암벽, 너덜바위, 폭포, 약수터, 수원지 등을 잘 가꾸어야 한다.

넷, 등산코스 산책로, 쉼터, 전망대등 자유스러운 산행의 흐름을 유도할 시설들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 만남과 교류공간인 광장, 야외전시, 정류장, 상가음식점, 온천 등을 활용하여 조성해야 한다.

여섯, 조각공원, 박물관, 전시장, 예술체험관, 그림그리기마당 등을 이용하여 예술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일곱, 공공 환경 시설인 가로등, 가로수, 키오스크, 광고물, 간판 등은 주변환경과 전체적으로 어울리게 디자인하고 유지 관리해야 한다. 등등

각각의 논리가 무등산을 사랑하듯 장소의 추억과 지속 가능한 것들이 모두를 즐겁게 해야 한다.

자연 환경이나 물리적 환경을 조화롭게 보존·보전 하기란 순탄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의지는 우여곡절이 많다. 전문가나 담당공무원들은 절차와 관계법에 자유롭지 않다. 지향하는 방향이 흐려지면 이권과 주장만 강해지기도 한다.

그러기에 지역주민 단체들의 문화 창출의 용기와 확산, 전문가들의 참여와 창작활동, 담당기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이 함께해야만 가능하다. 상호 합의가 원만해야 한다. 합의과정도 문화이기 때문이다.

빛고를 광주는 문화중심도시로 몸부림치고, 시민들은 자긍심과 자부심은 있으나 도시문화를 걱정 한다. 그래도 무등산은 추억이 있고, 인간의 이상적 존재인 진·선·미를 추구하는 가르침이 있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

광주는 행복한 도시이다. 무등산이 있고, 무등산이 지니고 있는 정서가 흐르는 빛고를 시민이기에 행복하다. 광주 도시역사는 무등산의 품안에 있고, 우리는 광주가 아시아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로, 인류문화의 빛을 발하는 고을이 되기를 기원한다.

빛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언덕 양림산

- 글 쓰는 차례 -

1. 빛고을의 아침을 깨우는 언덕 양림산
2. 강변마을의 노래와 합성
3. 언덕을 걷는 길목과 고샅길의 속살

글/사진 송인동 교수
호신대학교 역사문화자원본부장

양림동 빠르게 보기

남구 양림동은 광주 근대 역사문화의 크고 작은 나이테를 담고 있는 역사문화마을로 일컬어진다. 빛고를 광주의 근대적 정체성이 100여년 전 개화기 무렵부터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광주 근대정신의 발전소 역할을 하였던 양림의 이야기는 빛고을의 근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다.

양림은 광주전남에 근대정신과 新문화의 유입과 보급의 통로역할을 하였다. 건축, 음악, 연극, 스포츠, 음식, 의류 등이 새롭게 도입되고 교류되었다. 전북 출신의 우수한 청소년들도 양림에 와서 외국어와 근대문화를 접하기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 중국의 3대 작곡가인 정율성, 차이코프스키의 직계 제자 정주를 비롯한 순한 예술인을 배출하였고, 박화성, 황석영, 문순태 등 여러 소설가들과 고독의 시인 김현승, 서정주, '봄비'의 시인 이수복 등을 비롯한 수십 명의 걸출한 시인들, '첫사랑'의 극작가 조소해 등의 발자취가 서린 곳이기도 하다.

배우지 선교사 사택에서 출발한 제중병원과 학교는 광주 근대의료와 근대 교육의 시작이었다. 식민지 치하 고단한 민초들은 양림 언덕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 계몽사상과 독립의식에 눈을 떴다. 다른 지역에 비하여 유난히도 남장로교 선교부와 이곳 사람들은 빈민구제, 한센병구제, 결핵구제 등을 비롯한 희생과 호혜의 공동체 사회운동을 활발히 전개한 점도 그 특징이다. 우철순, 최홍중, 서서평, 이현필, 고허번 등등 여러 인물들이 이런 섬김의 현장에서 선봉에 섰다.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여사가 언니 김향라와 고모 김필례를 따라와 거주하였던 양림은 상해를 비롯한 해외 독립운동과도 밀접한 관계를 지녔으며 양림은 여러 모양으로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다. 3.1만세운동과 광주학생독립만세운동의 시원지가 되었고 신사참배 반대운동, 애국정신을 담은 행사들과 운동들이 일제에 의한 학교, 임시학교, 폐교를 거듭한 수피아학교 등에 의하여 이어졌다. 양림의 독립정신은 호남지역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양림은 호남에서 기독교의 주요 발흥지로서 광주전남(당시 제주 포함) 각처에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우고 그 중심축 역할을 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예수전도단(YWAM), 대학생선교회(C.C.C.), UBF 등 세계적인 단체들이 한국에서 이곳 양림산에서 싹이 났다. 같은 이름의 세 교회가 불과 3분여 거리 안에 사이좋게 모여 있는 것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풍경이다.

양림산 숲을 조성하고 가꾸었던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나무 한 그루를 베더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그 나무를 베어야하는지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100년 또는 400년 넘은 거목들이 즐비한 양림의 숲과 문화자원들의 기나긴 이야기를 앞으로 몇 꼭지로 나누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겠다.



양림은 양림산의 언덕과 골에 자리한 마을이다. 지리적으로 이 작은 산은 어머니 같은 자태의 무등산 허리를 넘어오는 아침햇살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광주 도심지의 동산이다. 역사문화적으로 양림 언덕은 야외 박물관처럼 개화기 빛고을의 아침을 일깨운 정신과 가치들이 숨쉬는 동산이며 이 고장 근대정신의 발자국으로서 다채로운 애국애족운동, 자기희생과 섬김의 독특한 공동체 운동 등이 태동된 곳이다. '광주 근대문화의 보고' 양림동을 만나보자.



양림산에서 바라본 무등 일출 서광
- 예부터 광주8경의 하나이다



무등을 넘어오는 햇살을 맞는 양림언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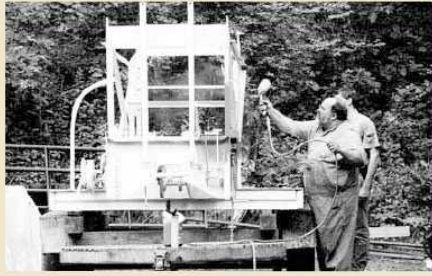


400년 이상 그 자리에서 가지를 펼치고 서있는 양림산의 호랑가시나무

1904년 12월 25일 양림산 자락의 배유지 선교사 임시 사택에서 광주 시내권의 첫 예배가 드려졌다. 옛적 애들이 죽으면 풍장이 되던 민중의 양림산에 선교사들은 참나무, 흑호도나무, 팽나무, 은단풍나무, 백일홍 등 수많은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이 되게 하였다. 배유지를 비롯한 남장로교 선교사들은 남북전쟁의 생채기가 깊은 미국 남부 출신으로 북부의 양키즘과는 다른 디식(Dixie) 정신을 지녔다. 그들은 자기 집을 개방하였고 여기서 광주의 첫 근대 의료기관인 제중병원, 대한제국의 인가를 얻은 광주 첫 근대 여학교와 남학교 등이 시작되었다. 일제강점기 질고와 질병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은 채 봉사하다 비교적 젊은 나이로 사망하여 이 땅에 묻힌 이들이 많은 것도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한 특징이다. 4대가 넘도록 한반도를 사랑해온 배유지 가문을 비롯,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남북한을 넘어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이들의 봉사 뿌리는 양림산 정상에 있는 배유지 선교사 묘원에 있다. 배유지 선교사를 비롯한 22명이 잠들어 있는 이곳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선교사 집단 묘원이다.



양림산 정상에 있는 선교사묘원



100년 넘도록 한반도 사랑을 실천
115년 동안 한반도 사랑을 실천해온 배유지선교사 후손들 - 북한 우물파기사업을 위해 기계를 준비하는 모습



근대식 병원은 고질적인 전염병들과 천형(天刑)으로 알려진 나병, 결핵과 같은 난치병 등을 퇴치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였다.
(광주기독교병원 자료)

헌신적이던 오기원 선교사는 1909년 초봄 아직 추운 날씨에 아픈 몸으로 장흥 일대를 순회하다 병이 중해져 사흘 걸려 광주로 가마에 실려 왔으나 며칠 후 별세, 양림산 언덕에 최초로 묻혔다. 오기원의 별세는 나병환자들을 위한 희생과 섬김의 공동체 운동을 촉발시키게 되었고, 곧 오기원기념각의 건립으로도 이어졌다. 이 기념각은 일제하 민족의식 배양의 요람이자 호남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회관이었으며, 광주의 첫 근대 오페라, 근대 음악회, 근대 연극, 근대 시민운동 조직 등도 여기서 시작되었다. 아치와 주석(柱石) 기둥, 경사진 2층 구조 등 독특한 양식의 이 건물은 지금도 원근 각지 방문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오기원 기념각의 야경

1909년부터 나환자 사역을 개시한 제중병원장 우월순은 1911년 인가를 받아 1912년 우리나라 최초의 나환자진료소를 최홍종이 기증한 봉선리 땅에 건축, 최홍종과 서서평 등의 헌신적 협력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구제하였다.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가라는 충독

부 지시로 1928년 여수 울촌면으로 이전, 애양원이라 칭하였다. 나환자들을 가족으로 삼고 보살핀 우의사를 환우들은 아버지라 불렀다. 우월순은 1908년 자신의 집에 장애아와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 이 지역 최초의 고아원을 열기도 하였다. 평생을 걸인과 약자들을 위하여 헌신한 '광주의 아버지' 최홍종 선생은 소록도의 슈바이처라 불리는 신정식 박사가 가장 존경하던 분이기도 하다.



우월순선교사사택
1910년 무렵 우월순이 양림산에서 벽돌을 구워 건축, 훗날 화재 후 고쳐지었다.



이 집에서 태어난 우월순의 세 아들이 이제는 고령의 노인들이 되어 2009년 손녀들과 함께 이곳을 모처럼 찾아와 옛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병자들에게 헌신적인 우월순처럼 그의 부인도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은 나환자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었고 이에 아이들은 모두 나환자들의 상처에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꽃아주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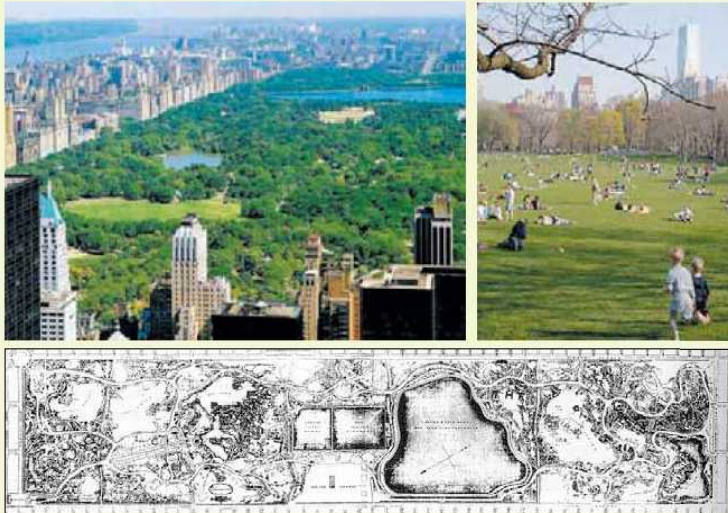
무의무탁한 여성들과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던 서서평은 1922년 이일학교를 세워 조아라를 비롯, 호남의 여성 지도자들을 길렀다. 병환 중에도 방곡곡을 순회하여 1922년 부인조력회를 조직, 여성들의 사회적 위상을 드높였다. 서서평과 선교사 부인들은 가난한 여성들이 지립할 수 있도록 양잠, 수예 등의 기술을 가르쳤다. 제중병원 간호사이던 그는 일본의 심한 방해로 1923년 대한간호협회를 조직, 국제간호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별세하자 지역 유지들의 주창으로 일제하 광주 첫 사회장이 거행되었고 많은 빈민, 과부, 병자, 고아들이 모여들어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생을 바친 서서평 자신은 극도의 가난 속에 영양실조로 별세, 양림산에 잠들어 있다.



서서평 선교사는 부인조력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여성들이 차별과 천대를 벗어나 사회 속에서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서서평선교사가 조직한 부인조력회, 광주기독교병원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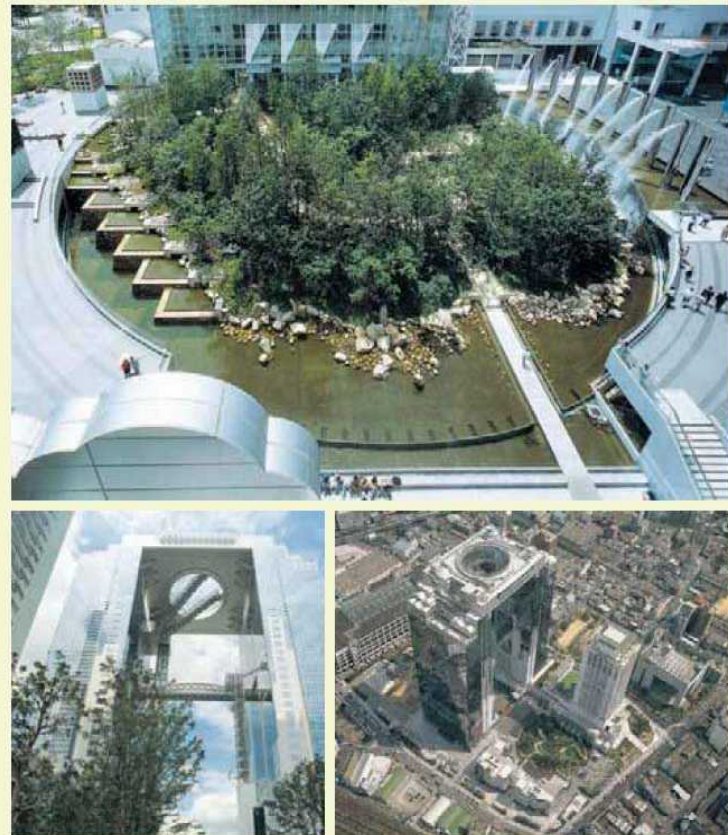
조경 Landscape Architecture 과 건축 Architecture의 근연관계

조동범 교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 센트럴 파크

교외로 나가 주말을 보낼 수 없는 도시노동자들의 여가와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근대도시공원의 이상을 담고 계획된 뉴욕 센트럴파크, 움스테드와 보우, 다운닝의 협업에 의한 결과이며 근대 조경학의 탄생의 배경을 담고 있다.



▲ 우메다 스카이 빌딩

건축가 하라 히로시(原 廣司)와 조경가 요시모토 모토오(吉村元男)가 협업한 오사카 우메다 스카이 빌딩의 공중정원과 중자연의 숲. 건축, 조경 양쪽의 도시이미지는 관점의 독립성이 높고 동일한 부지에서 전개되므로 상호보완성을 얻을 수 있고, 양자의 우주관을 시야에 넣은 개념적 형태가 공간에 병치되는 높은 수준의 디자인도 흥미롭다. 그러나 협업에 있어 중요한 경계부였던 공공보행공간은 포장패턴에서 현재처럼 드러나는 바와 같이 명확한 경계로 잘려져 있다. 분담된 형태의 협업은 경관으로도 나타난다.

건축인들이 인접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었기에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가 건축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조경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가 막상 고민되는 부분이다. 책이나 다른 글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몇 개의 작품이나 설계경향을 소개하는 정도로는 지면 낭비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조경학 교과서 수준의 내용(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으로 진행하는 것도 따분한 일이다. 건축인 중에는 조경에 대한 이해나 시야가 매우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조경인 보다 특히 자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능에 종사하는 분도 있기에, 자신의 배경이 드러나는 내용은 오히려 있을 수 있는데, 남의 동네(?)에 와서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글을 쓴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어렵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러한 부담감은, '건축과 조경은 근연관계이다'라는, 마치 처음부터 설정되어 있었을 것 같은 계보와, 실제로 건축가와 조경가가 만나 가족관계(?)를 따질 때 확인되는 동질감보다는 아무래도 이질감이 가까운 그 무엇에서, '근연관계는 어떠한 유전자를 근거로 정의되었던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던 단편적인 기억들에서 온 것이 아닐까 한다.

건축과 조경은 가까운 분야?

'건축과 조경은 가까운 분야'라는 관계설정은 건축의 정의에서는 없을지 몰라도 조경학의 정의에서는 늘 따라다니는, 프린트된 태그와도 같다. 필자를 포함해 특히 설계를 좋아하는 조경인 중에는 학생 때부터 건축동네를 기웃거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것은 메인과 서브간에서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분리되었다기 보다는 조경에서 배우지 못했던 갈증이었을까, 뭔가 결락된 부분을 채워 넣으려는 본능적 행동이었던 것 같다. 건축은 조경과 근연관계라는 막연한 근거에서 디자인 방법론의 유사성을 발견하고 자기화하려는 종류의 생물적 갈증과도 같은 것이다.

태동기 이후 1970~80년대까지의 한국 조경은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기였고 조경 고유의 디자인은 봉인된 상태에 있었다. 건축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해체주의 등 다양한 형태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환경심리나 행태, 그리고 대지미술로 대변되는 환경예술이 또 다른 근연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조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총합의 관계로 이어지고 어디에 스텐스를 두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암중모색 시기의 구멍 송송 뚫린 스펀지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건축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흡수본능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이미 30년이 경과하고 있는 지금, 필자가 함부로 소개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조경은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특히 설계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조경가들과 견줄 만한 실력을 갖추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또한 조경분야만의 확대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특히 건축 분야와는 전형적인 공간 분담의 관계로서 뿐만 아니라 도시나 경관 등에서도 또 다른 형태의 근연관계로 만나고 있다. 그러나 그 무대에서는 과거처럼 일방적인 전달과 흡수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간섭과 경우에 따라서는 침범의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양면의 감정이 한구석에 있지만 어느 쪽이든 각자의 분야를 확장할 수 있는 불가피한 협업의 관계이다.

협업으로서의 건축과 조경의 근연관계

건축과 조경의 근연관계는 조경학 태동기에서부터 협업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1900년 미국 하버드대학에 조경학과가 신설되면서 조경학이 학문으로 성립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프레드릭 로 움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 그가 1858년 뉴욕의 센트럴파크 현상공모에서 당선될 때 연명으로 제출된 이름에는 프랑수아 출신의 칼버트 보우(Calvert Vaux)가 있었다. 그는 도면작성과 같은 기술적 부분을 담당했으며, 조경디자이너로서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던 움스테드에게 보우는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협업의 파트너였다.

조경과 건축의 근연관계는, 이런 고전적인 사례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 만큼 뿌리 깊은 것이었으며, 앞으로의 협업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지를 짐어봄으로서 예측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은,

편집자주 : 건축과 조경은 별개의 학문일까?

지금은 학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섭(統攝, Consilience)에 의한 상호 발전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 이에 '건축문화사랑'에서는 건축과 조경 사이의 접점을 찾아보고, 협업 방향과 그로인한 상생의 방법들을 5회에 걸쳐 조동범교수님의 글을 통해 모색하는 장을 마련한다.



▲ 선유도 공원

폐기된 기존 산업시설을 공원시설로 활용하거나 문화적으로 재생하는 프로젝트의 증가는 건축과 조경의 협업을 더욱 자극하는 배경이 된다. 조경설계 서안과 조성룡 도시건축, 다산건설트 등의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선유도공원, 서로의 분야가 어떻게 자극이 되었는가로 이야기되는 경우는 그다지 확인되지 않는다.

'사회구조의 고도화, 전문화에 의해 디자인 프로세스가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이라는 정도의 배경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정도만으로는 작업 분담적인 협업의 필요성은 설명될 수 있어도 본질적인 의미로는 약하다. 협업이 추구되는 보다 본질적인 이유라면, 개인단독으로 디자인을 하기 보다는 공동으로 할 때 성과가 더 얻어진다는 기대감과 함께, 협업이기 때문에 창조될 수 있는 결과에서 공동성·공유성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건축과 조경은 공공성을 획득하기 위한 설계라는 점에서 협업의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은 각 분야에서 중요한 근거를 마련해준다.

그러나 협업이 현실적으로는 간단하지 않다. 바람직한 협업의 실현을 위해서는 거기에 참가하는 멤버의 주체성을 인정해가면서 대립을 포함한 경합을 전제로, 그것도 더욱 상호비평적인 상황에서 융합해가는 과정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협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며,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없다면 기계적으로 작업 분담한 공동작업 쪽이 효율적일지 모른다.

뉴욕 센트럴파크의 고전적인 사례에서 보우의 이름이 훗날 뒤로 밀려난 것은 단지 기술적 역할에서 그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공원의 디자인보다 사회적 역할과 도시노동자들의 복지적 공간으로서의 공공성에 관심을 둔 옴스테드의 공원 사고가 시대적으로 의미있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반대로 건축의 입장에서, 식물에 대한 지식과 배식 기술을 대신 해주고, 시대적 조류인 생태적인 모습을 그럴듯하게 차용해 실현시켜줄 수 있는 협업자로서 조경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본질적인 협업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협업은 동시대를 나눠가질 수 있는 주체와의 사이에서 성립하는 것이지 과거의 그것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눔을 통해 함께 하는 세상만들기!

광주건축사회, 독거노인 집짓기 사랑나눔 봉사활동



유난히 추운 올해 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 엄동설한에 포공 언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행사가 열렸다.

지난 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광주 남구 월산동에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주최, 광주남구자원봉사센터 주관으로 '독거노인 집짓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이 열린 것이다.

이번 독거노인 집짓기 봉사활동은 광주시 남구청이 후원하였으며, 광주시건축사회에서 지원한 사업비 500만원으로 지붕, 창호 및 기타 부부를 보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대상 건축물은 남구청 복지과의 협조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독거노인 집을 선정하였고, 남구자원봉사센터 봉사자(동성고, 석산고, 인성고 등) 17명, 건축사회 10명 등 총 30여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이뤄졌다.

창호보수공사는 현장을 실측하여 전문업체에 창호제작을 의뢰한 다음, 목재로 직접 제작한 수납선반과 함께 설치하였다. 그리고 지붕공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기존의 지붕 위에 목재 지붕틀을 짰 다음, 철재 지붕과 옹마루를 얹고, 처마부분에는 물받이를 장착하였다.

집짓기 봉사활동을 총괄한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회장은 "이번 공사는 건축사들의 사회적 본분을 다하는 것중의 하나다."라며, "앞으로도 광주건축사회회와 함께 이런 뜻 깊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행정지원을 담당한 남구청 복지과 최현숙씨는 "이번에 선정된 독거노인 2가구는 가족은 있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건축사회의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건축 봉사모임 단장 한재원(인성고, 2학년)군은 "이번 봉사자 장래의 꿈인 건축인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바람 부는 날이면 찬바람이 문지방을 넘어 방안까지 몰아치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방안을 적셨으며, 눈이 쌓이면 행여나 천장이 무너질까 걱정부터 앞섰던 독거노인분들.

그분들은 공사가 마무리되자 새롭게 변모한 집을 보시고는, 불편한 허리를 연신 숙이시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셨고,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배어 있는 미소를 지으셨다.

그 모습에서 이번 집짓기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노고는 눈 녹듯 사라져 갔고, 사회봉사에 대한 보람도 한껏 느낄 수 있었다.

곽승국 전담기자 (ksk830710@hanmail.com)



지붕공사 전, 부직포로 덮어진 지붕

목재로 된 지붕틀에 지붕잇기 공사 중

옹마루와 처마부분작업 후, 지붕공사완료

시종일관 웃음을 지으며 넓은 자재를 옮기고 있는 학생들

창호공사를 위해 기존재철거

제작 의뢰한 창호에 실리린 작업뒤, 창호공사 완료된 사진

Interview



장상근 前 본부장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광주광역시 종합건설본부

1월 27일(수) 광주광역시청 13층에 위치한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하였다. 광주시에는 건축관련 조직으로서 건설교통국과 도시건축국이 있으며, 사업소로서 종합건설본부가 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 2008년 1월 조직개편으로 건설 분야의 설계·시공을 전담 관리하는 사업소로 신설되었고, 시의 모든 건설 사업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에 건축문화시망의 편집장인 박홍근 건축사가 장상근 종합건설본부장을 방문하여 종합건설본부의 추진사업에 관하여 인터뷰 하였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호부터 관공서의 추진사업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설계와 시공을 전담 관리하는 사업소로서 목표를 '명품광주 만들기'라고 들었습니다. 국가간의 경쟁에서 도시간의 경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화추세에서 도시의 랜드마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랜드마크의 유형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시를 대표하는 초고층 빌딩이나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자유여신상,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같은 문화적 상징물이 랜드마크가 됐지만 요즘은 상징성이 강한 단일건물보다는 비즈니스와 문화가 공존하는 단지나 도시 그 자체를 랜드마크로 하는 공간개념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시가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력을 지닌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먼저 우리 시가 친환경 녹색저탄소 도시인 그린시티(Green City)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대적인 랜드마크이자 명품 브랜드 도시는 「심장」에서 「허파」란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낭만의 도시 파리는 녹색공원인 「라빌레트」를 도심에 조성하여 도시의 허파를 확산했고, 우리 시도 규모는 작지만 구 한국은행부지에 「금남로 공원」 조성을 시작으로 최근 시청 앞을 공원으로 변모시키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창의적인 발상과 시대가치의 반영과 준비입니다. 우리시에서도 공공건축물, 공공공간들을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인식시키고자 전국 최초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적용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린시티 이후의 시대가치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 시점에 우리시에서는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시의 경쟁력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단위 건립사업을 종합건설 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어떤식으로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고 있나요?

사회적 문화적 시민의식이 성숙해 지면서 확실성을 탈피하고 무미건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생각과 의식을 가진 시민,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관 주도의 일방통행식의 건립사업에서 벗어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건설설계자문위원을 구성하여 단위사업별로 지속적인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인 경우에는 설계·시공자문과 별도로 최고의 전문가를 커미셔너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 2009년 고품격공공시설물 건립 주요사업 〉



명품 도시 만들기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초빙해 각종 자문회의와 커미셔너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문실적으로는 2009년도에 50여회에 걸친 자문회의와 전문가 의견 반영이 있었습니다. 민간 전문가의 참여로, 시민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의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고 도시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확산되고 있으며, 도시 경쟁력 강화에 밑거름이 된다고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법 규정에서 정한 일정규모, 금액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자문위원회가 부재하였으나, 종합건설본부로 이관된 각종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소수의 외부전문가로 개별·별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에서 통합 자문위원회 구성으로 행정 간소화 및 신속한 의사결정하기로 한 바 차차 개선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용역사의 입장에서 이러한 자문회의들이 비용부담과 시간부담, 설계자의 독창적 영역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자문회의를 통해서 더욱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과 자칫 놓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분	복구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	비엔날레 시설확충 공사
기본계획		
실사설계		
자문사항	단지 재배치와 색채디자인 도입	세계3대 비엔날레 시설로 예술성 제고

장상근 본부장님은 30여년간 건축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를 해 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참 많은 작품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광주문화예술회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월드컵 경기장, 최근의 광주천교량경관개선사업 등은 제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업무들이었습니다. 건축인으로서 광주시의 고품격 건축물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광주 건축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인터뷰: 박홍근 편집장 (foryoua@hanafcs.com)
정리: 신영은 건축사기자 (archsy@naver.com)

편집자주 : 인터뷰 당시 (1월 27일) 종합건설본부의 본부장은 장상근님이었으나 1월 29일 인사발령에 의해 장상근 본부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 본부장은 김정운입니다. 일정관계상 장상근 前 본부장 인터뷰 내용을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행태로 사회참여를 하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의 활동사항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소개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금번에는 반석종합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3선의 광주광역시원으로 당선된 활동을 하고 있는 김후진건축사를 만나본다.

광주를 회색도시에서 녹색생태도시로 만들어 가자!

녹색생태도시 건설을 위한 인공호수공원 조성을 주창하는 건축사 김후진

김후진 건축사, 공학박사
반석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2·3·5대 광주광역시 의원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던 날, 2009년도 시정 질문회에서 거대 인공호수공원을 제안한 광주광역시 의원 김후진 건축사를 만나기 위해 반석종합건축사사무소를 방문했다. 훈훈함이 배어 있는 사무실에는 건축사로 살아온 지난 20년을 진직케 하는 작품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건축사 김후진은 건축작품활동을 하면서도 2·3·5대 광주광역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는 3선의 최다선 시의원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성장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진에서 태어난 그는 지난 때문에 중학교 졸업 후부터 선생활을 했고 군복무 시에는 베트남 전선까지 다녀왔으며 제대 후에는 검정고시·아간대학·공무원생활 13년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비로소 건축사시험에 합격하여 작품활동을 시작하였고 건축공학 석·박사 과정도 모두 마쳤으며, 대학 강사와 겸임교수로 활동하며 후배양성에 힘쓰기도 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지금은 건축사이자 광주광역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기도 하다.

그와의 대화에서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와 성과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간추려 보았다.

소외되고 가난한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

"저는 어려웠던 성장과정 때문에 소외되고 가난한 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방역 활동 또는 겨울철 연탄배달 등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또는 보수하였으며,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도 불철주야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입법활동 분야에서도 2009년도 한해에만 9건의 조례를 제·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그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한 활발한 입법활동

"2007년도에는 우리지역 건설업체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2009년도에는 건축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한 '건축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디자인 심의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공공디자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인 시정의 경제·감시·감독업무를 충실히 하였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대안제시



"행정의 효율과 관리 감독을 위해 행정사무 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980억에 이르는 초중고 전체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피력하였고, 무상보육을 위한 보육료 지원 확대와 퇴직 노인들의 노인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진흥사업의 활성화, 365일 열린 전자도시

관의 구축, 공공기관 에너지절감 촉구, 항생제 처방을 낮추기 위한 방안제시와 상수도 유수율 제고방안, 보건교사 배치 확대, 실내공기 오염물질 검사 추진, 장애인 활동보조 확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철저 등 다방면에 걸쳐 집행부의 위법, 부당한 행정을 감시, 감독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대안 제시하는데 노력을 왔다고 자부합니다."

친수공간이 부족하여 인공호수공원도 제안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를 찾은 가장 중요한 이유인 인공호수공원으로 화제를 돌렸다. 그는 2009년도 시정 질문회에서 쾌적한 녹색환경도시건설을 위하여 초거대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먼저 인공호수공원을 제안하게 된 배경과 제안 내용을 물었다.

"우리는 시민들이 물과 어우러져 살만한 친수공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도심 속의 휴식처가 되었을 경우 양방향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 너무도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 한강르네상스를 비롯하여 일산 호수공원, 수원 광고신도시 인공호수공원, 파주 교하수변공원, 울산 선암공원, 부산 민락수변공원, 대구 금호강 수변공원, 김해 낙동강 수변공원 등 친환경 친수공간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전국에 내놓을 만한 생태친수공간이 없다시피 합니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 호수공원으로 조성

"따라서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과 광주천이 만나는 서구 유촌동과 덕흥동 일대 165만㎡를 낭만적인 인공호수공원으로 개발한다면, 접근성과 이용성이 뛰어나 도심 속의 새로운 휴식처 및 생태문화공간으로 각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처럼 치수사업 일변도의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자연 생태적 조성과 과학적 관리로 사업을 극대화하여 최소 비용으로 아름다운 인공호수공원을 조성하지는 것인바

다. 그렇게 된다면 광주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재창조될 것이며, 관광자원이 빈약한 광주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는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호수공원은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생태도시 광주'의 랜드마크로 부상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광주는 세계인이 찾는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는 건축사이자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 될 것을 다짐

이처럼 김후진 의원과의 만남에서는 가난과 역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 왔다는 것과 지역 주민들을 대변하는 동반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한다는 것 그리고 건축전문가로서 인공호수공원 조성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등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열정에 힘입어 건축사 김후진 시의원은 지금껏 두 번의 대통령상과 두 번의 장관상 수상, 최근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정협의회가 주최한 제1회 지방의회 우수 의정활동사례에서 최우수의원 선정, 정치개혁과 도덕성회복을 위한 광주전남 유권자 연합에서는 우수의원 선정, 광주전남 지방의회 장애이정정책 의정활동 보고회에서도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각각 표창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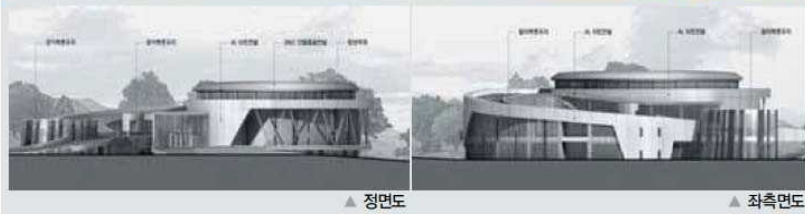
앞으로도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건축사,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의원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에게 앞으로의 포부를 물었다.

"인공호수공원조성은 영산강의 숨겨진 가치를 되찾는 계기로써 우리 광주시가 친환경녹색도시로,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정치를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경기공모결과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의 안이 당선적으로,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의 안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총 9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지상 2층의 연면적 4,879㎡ 규모로 건립된다. 당선안은 Symbol-영암군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도기를 형상화하여 상징성을 부여하고, Harmony-공설운동장과 하나의 화합을 만들고 조화로운 Sky Line 형성하며, Connecting-인근 스포츠 시설을 잇는 연결점으로, Urban & Nature를 연결하는 HUB역할등의 컨셉을 테마로 계획되었다.

영암국민체육센터 건립 설계공모

Yeong Am National Sports Center Concept
 빛어내다_땅을 반죽하여, 공간을 빛어내고 문화를 새기다.



당선작

(주)유탑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길종일, 양병범, 오금열

대지위치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리 100번지 일원
대지면적	78,747㎡
지역지구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도로현황	12M도로,20M도로(13번 국도)
연면적	4,879㎡
건축면적	2,811㎡
건폐율	3.57%
용적율	5.31%
층수	지상2층
주요구조철골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개요	자주식주차 40대(장애인주차 포함)
주요마감	AL쉬트패널/로이복층유리/합성목재



▲ 1층 평면도



우수작

(주)광주공간 건축사사무소
 조성호



Architectural Design Group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Since 2000

AD GROUP이 지향하는 목표는 **人本**입니다
 AD GROUP의 DESIGN 철학도 **人本**입니다

(주)건축사사무소AD그룹
 • 건축설계, 감리 • 도시계획설계

(주)에이앤디
 • 인테리어설계 • 인테리어 시공
 • 에코빛 단열필름 시공

(주)에이앤디 부동산 개발업(등록번호 광주090008)
 • 등록규모(연면적 2000㎡)이상 부동산개발
 • 약정에 따른 부동산 개발

(주)베트남하노이 건축사사무소AD그룹

AD GROUP 대표건축사 양동헌 심상봉 신정철 양동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1145-5 / T 062)527,5000 / F 062)523,3700

광주광역시에서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1989년부터 건축상을 시상했다. 본 지면에서는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을 수상한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건축인들의 자기계발을 촉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 금 상 세계 광역포 주재전사관
- 은 상 4D 고싸움놀이 영상체험관, 문화여성병원
- 동 상 북구 청소년수련관 별관, 리미다 프라자호텔, 과학기술교류협력센터

2009년 제13회 광주광역시 건축상/ 은상

문화여성병원

- 위 치 : 북구 운암동 486-7외6필지
- 용 도 : 의료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 연면적 : 4,702.66㎡
- 건축면적 : 816.48㎡
- 설 계 : (주)포유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박 홍 근
- 자료제공 : (주)포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있는 산모의 모습을 형상화.....

입석대를 품은 무등산의 장엄한 기상의 표현.....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에 위치한 문화여성 병원은 여성을 위한 전문 병원인 만큼 여성의 임신부터 산전관리, 여성을 위한 검진, 출산을 위한 공간, 산후조리와 소아건강관리를 위한 공간...

이러한 모든 행위가 한곳에서 가능하도록 병원의 기능이 ONE-STOP SERVICE 체제를 구축하여야 했고, 주거지에 위치한 이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건강프로그램을 시행할수 있는 문화공간을 형성하여 실환만을 위한 병원이 아닌 여성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 | | |
|----------|------------|
| 1. 진찰실 | 6. 수유실 |
| 2. 대기홀 | 7. 상담실 |
| 3. 영상실 | 8. 원무과 |
| 4. 임상병리실 | 9. 문화센터 |
| 5. 주시실 | 10. X-ray실 |

"Infinite Services for Ms"

여성을 위한 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하는 병원

"Ideal Space for Ms"

여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하는 병원



고싸움놀이 4D영상체험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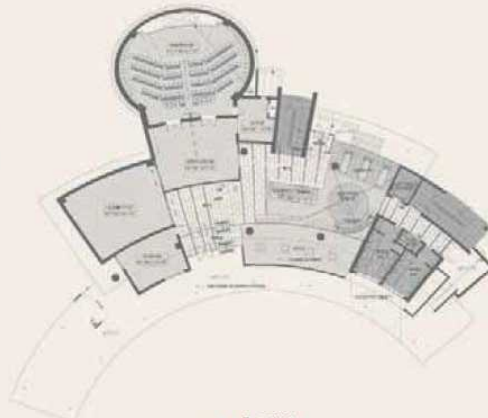
- 위 치 : 남구 칠석동 619번지
-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연면적 : 1,592.68㎡
- 건축면적 : 1,223.87㎡
- 설 계 : (주)맥스유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건축사 장정수, 임경희, 김기준
- 자료제공 : (주)맥스유



- 빛고을 광주의 기상을 표현하는 고싸움 놀이 장 형성.
- 남구의 미래를 표현하는 핵심주체.
-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 충족.
- 관리와 운영이 경제적인 체험관.

광주광역시 남구 칠석동에 위치한 고싸움놀이 4D영상체험관은 남구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고싸움 놀이'를 전통성을 지닌 미래지속 가능한 놀이 문화로 승화시켜 '향토문화 체험' 공간으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지역성과 상품성을 갖춘 친환경적 생태 문화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하였다.

건축물은 상징성 예술성및 이상적인 조형성을 최대한 부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하며 고풍대를 새로운 매스형태로 발전시켜 고싸움의 역동성을 형상화하였다.



■ 1층 평면도



학교소개는 우수건축인 양성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획하였으며, 먼저 5년제 건축학과를 광주·전남·전북 등 소재지별로 구분한 후 학교명의 한글 순서로 게재한다. 기사내용은 해당 학과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과로 문의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전국 최고수준의 지역거점학부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마음을 짓는 사람을 키웁니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는 1952년 전남대학교의 설립과 함께 개설된 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의 복합학문으로 인간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건축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육

건축 관련 전문직능분야의 교육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02년 5년제 건축학전공과 4년제 건축공학전공으로 분리하였다. 건축학전공은 '공공적, 생태적 가치를 실현할 창의적 실무형 건축가 양성', 건축공학전공은 '근본 원리의 이해와 현장실무를 겸위한 창의적 문제해결 전문가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1학년 2학기에 각 전공에 진입하여 건축학인증과 공학인증의 트랙에 따라 교육을 받게 된다. 그간 우리 학부는 1999년 대학교육협의회 건축학문분야평가에서 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중앙 언론사가 주관하는 대학 평가에서 전국 10위 이내의 학부로 평가 받아왔다.

우수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정규 교과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강좌와 국제워크숍, 국제교류프로그램, 장학금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학금은 타 대학과 비교, 국립대학으로서 우위에 있으며, 덧붙여 기업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는 다양한 장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단일 학과로는 드물게 운영하는 '건축학부 동문장학금'은 우리 학부의 자랑이다.

강좌 프로그램은 건축분야 전문가 초청강좌인 CNU soa Lecture, 건축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강좌로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7시에 열리는 목요일강좌, 그리고 국제적으로 저명한 건축가를 초청하여 이 지역과 지역의 대학 모두에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안당강좌 등이 있다.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년 여름 전 학년이 참여하는 국제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2009년은 친환경주거모형 개발이란 주제로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의 스티브 킹 교수를 튜터로 초빙한 바 있다. 설계스튜디오 최종크리틱에 외국인 교수가 초청되는데, 2008년에는 일본 기타큐슈 대학 이카가와교수가 참여하였다. 또 다양한 경험의 축적을 위해 서울대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우수 대학 등과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우리 학부의 동아리로는 역사가 가장 오래된 '울암'과 설계동아리 'JJ', '박스', 'Splash', 컴퓨터 동아리 '마우스', 구조동아리 'D.O.S', 건설기술동아리 'Archi-Tech' 등이 있다.

정규 교육을 토대로 학생들은 건축대전을 비롯하여 각종 건축설계, 건축공학 관련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성과를 토대로 학생들은 대형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 국영기업체, 공무원, 학계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

친환경건축기술 분야 최우수 연구중심학부

우리 학부는 연구중심대학인 전남대학교의 위상에 걸맞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 왔다. 일반대학원, 산업대학원, 협동과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고급연구인력을 양성한다. 지난 2004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지역거점연구사업'에 우리 학부가 중심학과로 참여하는 '바이오하우징연구 사업단'이 선정되어, 10년간 300억의 국가 R&D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친환경 소재 및 건강주거모형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을 포함한 지역 고급인력들이 장학금과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으며, 매년 다양한 해외연수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논문과 특허실적을 제출하고, 나아가 개발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지난 3년간 15억여원의 이전료를 수수하였다. 이러한 성과로 2009년 우수사업단에 선정되어 인센티브 1억을 추가 지원 받았고, 2010년 국토해양부정관이 수여하는 녹색기술대상을 받았다. 연구실에서의 기술이 아닌, 실제의 산업체에서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의 산업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마음을 짓는 사람을 키웁니다.

60여년의 역사 동안 우리 학부를 통해 배출한 동문들은 설계사무소와 건설회사는 물론 정관계, 학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SOM 등 세계적인 설계사무소에 근무하는 동문이 배출되는 등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가고 있다. 사회에서의 성과를 통해 동문들은 후배의 수련과 취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오고 있으며, 겸임교수로서 직접적으로 후배 교육에 참여하기도 한다.

동문들의 모교 사랑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최상준 동문(9회, 남화토건 부회장)이 우리 학부가 사용하는 건물의 4층 중축의 공사비를, 2010년 박승헌 동문(21회, 영진건설 대표)이 건축학부 전시실의 실내공사비를 기부하였다. 이승룡 동문(29회, 청도건설 대표)은 2007년부터 안당강좌를 운영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2008년 동문들이 쾌척한 학부발전기금 3억 3천만원을 기금으로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은 대학 학과 단위의 일로서는 획기적이다.

우리 학부는 지역의 거점대학으로서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교육과 연구 모두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역과 대학의 역사 면면에 살아 있는 공공적 가치를 인식하고, 사회적 책무에 비켜서지 않는 윤리의식을 가진 전문가의 양성을 추구한다. 대학에서 배운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할 '마음을 짓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 학부의 최종 목표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학부장: 오세규 교수 (oskar@jnr.ac.kr)
(학과사무실 : 062-530-1630)



국제워크숍



해외연수-독일 프라이부르크 생태주거단지



친환경주거-오펜프



공학전공 캡스톤디자인



2009 건축공학전공 작품전

2009 건축학전공 작품전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2009

UNIVERSITY NEWS

건축사사무소 현장실습 체험기

현장실습은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을 미리 체험할 수 있고, 또한 고민해 보면서 또 다른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졸업 후, 진로 결정을 수월하게 하고 사회 적응기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졌다. 그래서 이번 3학년 겨울방학에 도전해 보았다.

학교의 주선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보내게 된 곳은 서울 대학로 부근에 있는 '이로재'였다. 이로재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의 아틀리에다. 종합건축사 사무소인 이곳에서 다양한 일을 보고 듣고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건축주와의 미팅을 위한 브리핑 자료 준비, 스터디 모형과 본모형 제작, 기본계획도면과 실시설계도면 제작 등, 학교에서 배운 설계과정과 진행이 비슷하지만 보다 세밀하고 꼼꼼하며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가장 많이 배운 부분은 'Communication'에 관한 것이었다. 설계과정은 비슷하지만 회사와 학교를 구분 짓게 하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라고 생각되었다. 건축주와 디자이너, 또는 디자

이너 각자가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디자인을 정리하고 디테일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다.

그리고 이번 현장실습을 계기로 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던 점이 큰 수확이다. 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여러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통해 앞으로는 자신만의 전문적인 영역을 갖추어야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1월 한 달 동안의 짧은 실습기간 동안, 여러 선배님들께서 차근차근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던 터라, 모자란 실력이지만 최선을 다해 배우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었다.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건축에 대한 열정 하나로 모든 것을 이뤄내는 이로재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올 겨울은 현장실습 덕분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덕분에 가장 의미 있는 겨울방학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이수정 학생기자
(rozen_1@naver.com)

'합숙' 과 '합식'의 차이를 아시나요?

방학이 되면 우리학교 건축학부 동아리 대부분은 선·후배가 함께 선수학습을 하는 것이 전통처럼 자리 잡고 있다. 자세히 보면 그 방식은 제각각 다르지만 크게 분류하자면 합숙과 합식 2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합숙 동아리라는 함은 방학 중 일정기간동안 외부에 숙소를 정하고 숙식을 같이하며 학습을 하는 형태인데, 티동인·셀·소리개·한길 등의 동아리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합식 동아리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합숙을 제외한 나머지를 학교에서 진행하는 형태로서 라인센스·크로스·문턱·도시계획연구회·UCS 등의 동아리가 해당된다.

건축학부생 전원이 방학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이 경험을 하게 된다. 나 역시 입학 후 지금까지 방학마다 학습활동을 해 왔으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방학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바로 위 학년들이 지도를 하게 된다. 따라서 후배에게 알려주어야 할 지식이기 때문에 선배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선배라 하더라도 겨우 한 기수 위 일뿐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처럼 모두가 공부하는 자세로 하다보면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1학년이 작업한 3D

이번 겨울방학에 우리 동아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중점을 두었다. 1학년 때 처음 설계를 접하고 손도면에 익숙해져 2학년이 되면 도면을 프로그래밍화 해야 한다. 하지만 시간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학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마스터해야 설계과정에 무리가 없다. 그래서 1학년이 주축이 되어 주택설계와 도면 표현법으로 기본적인 캐드와 스케치업 작업을 하였다. 돌이켜보면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프로그래밍의 시도와 주택설계 접근에 의의를 두는 것으로 우리의 1차적 목표는 성취되었다고 본다.

한편, 이번 겨울방학은 영원히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하늘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이다. "너무나 일찍 하늘의 별이 된 나의 운사야! 부디 편하게 잠들기 바래."

조선대학교 건축학부 이슬기 학생기자
(homin1004@nate.com)

2010년 학위수여(졸업식)일정

일 자	대학교
2월 18일(목)	서남대학교
2월 19일(금)	군산대학교/원광대학교/초당대학교
2월 20일(토)	한려대학교
2월 22일(월)	광주대학교/동신대학교/목포대학교
2월 23일(화)	호남대학교/전북대학교/전주대학교/호원대학교
2월 24일(수)	우석대학교
2월 25일(목)	조선대학교/순천대학교
2월 26일(금)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 박현홍-주택개발사업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김양석-대학캠퍼스 시설 공간의 환경평가에 관한 연구(광주 전남국립대학중심)
- 김유지-공동주택의 외관디자인 구성원리에 관한 연구
- 이봉수-한국근대건축 등록문화재의 변용에 관한 연구
- 전진숙-대형시설이용자의 공간사인 인지에 관한 연구
- 김무오-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지요인 평가에 관한 연구
- 김대성-섬유보강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과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박주원-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의 디자인 구조와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택지 개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2010년 대학별 박사 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오상목-주거공간에 도입되는 수공간 유형별 디자인 및 환경 효과 분석 연구
- 원현성-건축계획적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이중외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이수용-주거단지개발에 따른 기존 주거지 주민의 생활권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 송호범-CFT 기둥과 무량판 슬래브 접합부의 횡방향 성능
- 홍주현-주거용 건축개발사업의 리스크기반 다양성 분석
- 조주영-치매노인요양시설의 치유환경 평가도구개발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 마창용-AE제 첨가에 따른 경량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압축강도에 관한 연구
- 박경원-목포지역 시민들의 아파트 구매에 프리미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군산대학교

- 박형권-비내진 설계된 RC골조 내부 접합부의 내진보강방안 실험연구 (1988년 설계기준이 적용된 건물 중)

(자료를 보내주시면 광주·전남·전북 건축관련학과 박사 논문을 게재하여 드립니다.)

이색 아르바이트 '순천 국제 정원박람회 모형제작'

2013년에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배경으로 '국제정원박람회'가 열리게 되었으며, 지역발전은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순천시에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제정원박람회장을 한 눈에 둘러 볼 수 있는 모형을 제작하게 되었고,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동아리인 'DH'가 참여하게 되었다.



그래서 'DH'회원들은 겨울방학 Study의 일환으로 국제정원박람회장 모형을 만들고 있다. 총 11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박람회장을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는 학우들은 역할을 분담하여 모형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모형이 너무 작아서 핀셋이 없으면 작업이 불가능하고, 작은 실수에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색을 입히는 데도 작고 미세한 붓 터치가 필수적이며, 심호흡 한 번에 칼질 한 번이 당연할 정도다. 그러한 학우들의 정성에 힘입어 DH 동아리방에서는 국제정원박람회장을 미리 볼 수 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과 패기로 뚝뚝 뚫어놓은 방향을 보내고 있는 그들이 부럽고 자랑스럽다. 이런 것이 공부도 할 수 있고 학비도 벌 수 있는 건축학부생만의 독특한 아르바이트 아닐까.

장주영/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전원기사 정정

건축문화사랑 2010년 1월 11일자 11면 대학소식 조선대학교 건축학/건축공학 분리모집 기사에서 "조선대학교 건축공학부는 2008년도에 한국건축교육인증원의 건축학인증을 받았고, 2009년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건축공학인증을 받았다."를

▶ "조선대학교 건축학부는 2008년에 한국건축교육인증원에서 건축학 UIA 예비인증을 받았고, 2009년에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건축공학교육예비인증을 받았다"로 정정합니다.

그대 떠난 빈자리

- 故 박광규 교수를 그리며 -

윤재희/광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의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듯합니다. 지난 해 말,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난 故 박광규 교수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고 그가 그리워집니다.

박 교수는 한국건축사와 건축설계 과목을 담당, 강의 하였는데, 건축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읽고 아버지와 같은 자상함으로 교육을 펼쳤습니다. 여러 졸업생들은 오늘날에도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같으신지..."라며 박 교수의 인자함을 기억하며 지난날을 회상할 정도입니다.

학자로서, 교수로서, 저자로서, 대학행정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박 교수는 안타깝게도 2005년에 어려운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치료와 휴식을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열정적인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본부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지 않게 되자, 지난 날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건축학과의 교수진이나 학생들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설계실에서, 그리고 전통건축답사의 현장에서 함께 한 시절,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박 교수는 2009년에 병이 재발하여 돌아오지 못할 떠나 먼 여행길을 먼저 떠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해 공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귀여운 세 자녀를 남겨두고 서둘러 떠나고 말았는지... 학생과 동료와 친구들과 자주 함께 하며 정담을 나누고 오래오래 살을 함께 하였으면 좋으련만...

지난 여름날 오후, 박 교수의 연구실에 마주 앉아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던 일이 떠오릅니다. 여름의 무더위가 물러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함께 자주 틈을 내어 주변의 자연과 그 속에 파묻힌 건축을 찾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약속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곁을 떠난 그이지만, 자신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온 그이기에 살아 남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있을 듯합니다. 마치 어느 아메리카 원주민의 위로처럼 말이지요.



내 무덤에서 울지마오,
거기 난 없다고 거기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불고 또 부는 부수한 바람이아오,
눈 위에 번쩍이는 그 다이아몬드의 섬광이아오,
영근 곡석 위에 쏟아지는 그 햇살이아오,
보슬보슬 뿌리는 그 가을비아오,
고요한 아침에 그대가 깨어날 때면
하늘에 소리 없이 원을 그리며
손살같이 솟구치는 그 새들의 물결이아오,
밤이면 그 보드라운 별빛이아오,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마오,
거기 난 없다고 거기 잠든 게 아니라오.

요즘은 나 홀로 박 교수와 약속했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늘 내가 가는 길에 박 교수가 무수한 바람으로, 따사로운 햇살로, 보슬보슬 내리는 비로, 소리 없는 새의 물결로, 그리고 부드러운 별빛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훗날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한 날이 되기를...

못다 이룬 그의 뜻

- 故 임채중 건축사를 추모하며 -

양동협/(주)한길 대표 건축사

그는 이제 막 피려고 머무어 있는 하나의 꽃봉오리였고 우리 건축계의 새로운 별이 되고파 했던 열정의 화신이었다. 이리 빨리 갈 것을 알고나 있었는지 병석에 누기 전까지 무던히도 바쁘게 살았었다. 잠잠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었다. 그래서 일이 주어지면 그대로 놔두지 못하고 올인하는 그의 성실함과 건축에 대한 경건함은 나도 배워야 할 덕목이라 생각했었다.

그와 나의 인연은 내 아내의 막내 동생인 탓에 일찍이 나의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故 김태만 선생님 문하에 같이 건축수업을 받기도한 한 식구이기도 하다. 기술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기를 바라셨던 故 김태만 선생님의 뜻을 알았음인지 사무소 개업 12년 동안 그의 올곧은 성격을 알 수 있는 여러 얘기가 나에게 전해져 흐뭇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열악한 환경의 광주에서 건축활동을 하기로 한 쉽지 않은 현실임에도 열심히 정열적으로 살다간 그를 기리며 못내 아쉽고 그립다.

그리고 네가 열창했던 '꿈이 빛 스카프'를 다시 들을 수 없음을 더 가슴이 아파온다.



- ▶ 주요 작품
 - 동명회 노유자사설(광주)
 - 오산 농협청사(곡성)
 - 옥성 워터파크(장흥)
 - 해태마트(광주)
 - (주)대유에이텍(광주)
 - 상무 월계수 타운(광주)
 - 순창 노인병원(순창)
 - 금천농협 산지유동센터(나주)
 - 시너스 영화관 전대점(광주)
 - 선 오피스텔(광주)
 - 경남은행 산청지점(경남)

교수님! 그림습니다.

- 故 장길수 교수님을 기리며 -

신 훈/동신대학교 건축학과

경인년 호랑이해가 매서운 추위로 시작되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겨우내 불었던 바람도 따듯한 봄기운에 밀려나 세상은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물들게 되겠지요.

그러나 항상 웃는 얼굴로 제자들을 대해주시던 장길수 교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2010년이 아직은 낯설기만 한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며 소탈하셨던 장길수 교수님, 수업시간에는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던 모습, 저희가 진로에 대해 방향할 때는 기본 잣대를 잡아주시며 함께 고민해 주시던 모습, 체육대회 때는 달리기를 기꺼이 함께 해 주시던 모습, 걸쭉한 노래솜씨를 뽐내시며 막걸리를 들이키던 모습... 아직도 교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저의 머릿속에 생생히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텅 비어있는 교수 연구실을 바라보니 다시는 볼 수 없는 교수님이 더욱 간절하게 생각납니다. 학문의 논의는 물론 개인적인 대소사까지 편하게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던 열린 만남의 공간이자 사랑방같이 편안한 공간이었던 연구실.

우리에게 교수님임과 동시에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항상 반갑게 우리를 맞아주셨는데 지금 이 곳은 쓸쓸한 적막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수님께서는 병을 앓으실 때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학문에 내주어 그리고 일에 내주어 마지막까지 열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연구실을 나서시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 되리라곤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했었지요. 그렇기에 교수님이 없는 지금이 너무 낯설고 교수님을 데려간 저 하늘이 너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장길수 교수님, 교수님께 항상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밀려옵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기억하며 교수님의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라 믿으며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끝으로 교수님 영전에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헌화하며 늘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며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교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故 장길수 교수님(가운데)

내 무덤에서 울지마오,
거기 난 없다고 거기 잠든 게 아니라오.
나는 불고 또 부는 부수한 바람이아오,
눈 위에 번쩍이는 그 다이아몬드의 섬광이아오,
영근 곡석 위에 쏟아지는 그 햇살이아오,
보슬보슬 뿌리는 그 가을비아오,
고요한 아침에 그대가 깨어날 때면
하늘에 소리 없이 원을 그리며
손살같이 솟구치는 그 새들의 물결이아오,
밤이면 그 보드라운 별빛이아오,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마오,
거기 난 없다고 거기 잠든 게 아니라오.

요즘은 나 홀로 박 교수와 약속했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늘 내가 가는 길에 박 교수가 무수한 바람으로, 따사로운 햇살로, 보슬보슬 내리는 비로, 소리 없는 새의 물결로, 그리고 부드러운 별빛으로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훗날 다시 만날 때까지 평안한 날이 되기를...

건축문화 **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신정철
편집인 박종근
전담기자 박승국
편집위원 이순미, 서재형, 정태호, 신영은, 정명환, 김삼현, 정영범, 정관성, 박종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인쇄·제작 삼화문화사 T.062.222.6660
광고신청 T. 062521-0025

건축문화 **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 **사랑** 표/지/설/명

호남의 도시, 생명의 물줄기
호남은 1개 광역시 1개 시로 이루어져 있다
매路透 않은 천혜의 자연 서해와 남해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 멀리 백두대간에서 흘러 온 두류(砥流), 지리산이 위치한 내륙을 감싸고 있다
자연을 품은 우리의 도시를 읽는다

건축문화 **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
독자만평/기타 (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 취득, 교수 임용, 인사이동 등 회원동정)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 (Tel : 062-521-0025)
E-mail : gj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영조체, 10포인트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 특별

넛지의 시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건축설계의 기술

나용선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넛지(nudge)의 시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 설계의 기술'을 이끄는 부드러운 힘으로 넛지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넛지 nudge」는 캐스 R. 섀스타인, 리처드 H. 탈저가 공저한 책으로, 행동경제학을 경제학계에 널리 알린 경제학자와 법률정책자인 두 저자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선택설계의 힘'을 넛지라 정의하며 이 시대의 새로운 행동학을 제안하고 있었다.

작년 크리스마스 날, 우리가족은 전국을 강타한 아바타를 보려고 캐롤송을 들으며 영화관에 갔다. 영화관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표가 없다는 매표직원의 말에 너무 황당하였고, 계획 없는 결과를 초래한 아빠를 보는 아이들과 아내의 눈은 뭔가 새로운 결정을 바라고 있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들떠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어떻게라도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비디오표 빌려 집에서 다른 영화를 보기로 하고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만화책을 선물하고자 1층의 서점에 들렀다.

서적 베스트셀러코너에 꽂혀있는 노란책에 넛지란 제목을 보고 무슨 책인가 하고 손이 갔다. 넛지(nudge)는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을 뜻한다. 옆 사람의 팔을 잡아끌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팔꿈치로 톡 치면서 어떤 행동을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넛지 행위에 대해 많은 실제적 사례들을 볼 수 있다. 가장 유명한 예로는 암스테르담 공항의 화장실의 이야기이다. 이곳의 화장실 변기에, 파리

모양의 스티커만 붙여놓았는데 변기 밖으로 새는 소변의 양이 80%나 줄었다는 것이다. 어떠한 강제적인 조치나 문구하나 없이도 스티커 하나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도 화장실 어디선가, 변기에 여자와 남자그림의 스티커를 붙여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들도, 넛지의 힘을 이용한 좋은 예가 아닐까?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에게 보여 준 아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실망을 생각하면 앞으로 아빠의 넛지를 고민한다.

광주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월간지 '건축문화사랑'을 보면서 '광주 넛지 건축공모전'을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 최근 웅진씽크빅이 '넛지 효과 환경공모전'이라는 공모로 환경 행동학에 앞장 선 것과 같이 광주의 건축단체가 이끌어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한다. 광주의 건축인과 단체에서 광주의 발전을 유도하고 개입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본다.

넛지의 부제는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이다.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소변기에 파리 모양 스티커를 붙여놓는 아이디어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에서 광주건축사회가 광주의 건축문화를 새롭게 정의하고 문화스티커를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방향을 위하여 넛지의 시대, 똑똑한 선택을 유도하는 광주건축사회가 새로운 건축설계기술을 제시하여 광주의 건축과 도시의 행동학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내가 읽은 책

승효상 著 『지문(地文)』 열화당/2009

Book



우리네 사찰이나 전통마을의 공간구성과 그 속의 건축물들은 모두 지형의 형상에 최대한 순응한다. 그대로 그곳에 끼어 넣은 듯한 모습으로 놓여 있다. 즉 땅의 형상에 합당하게 그곳의 일부가 되어있으며 자연의 형상에 동화된 인공구조물들이 다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우리의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한다.

이제는 지형을 평면적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3차원의 입체적 분석과 그에 따른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의 신도시나 주택지들은 기존 지형의 입체적인 형상이 모두 사라지고 없다. 토목공사를 통하여 구릉지는 깎고 계곡은 메워서 평지를 만들고, 길은 곧게 펴서 바둑판처럼 구획을 한다. 어느 지역이나 거의 같은 대지모양을 만들고 있다. 땅에 대한 그 지역의 고유한 형상은 없고 단지 도로와 대지와의 관계만 존재하는 그런 지역들만 만들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는 우리에게 '터무니'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건축가가 있다. '빈자의 미학'을 주제로 삼아 비움의 건축, 덜어냄의 건축을 추구하던 승효상. 그가 다소 생소한 단어인 '지문(地文, Landscript, 땅

위에 새겨진 자연과 삶의 기록들)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우리가 늘 함께 하면서도 놓치고 지나쳤던 그 장소의, 그 '터'의 역사 즉 '터무니'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소중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말 '터무니'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터에 새겨진 무늬'라는 뜻이다. '터무니없다'는 말은 근거 없고 이유가 없음을 뜻한다. 놀라운 의미다. 적어도 우리 선조가 가진 삶에 대한 생각은 근본적으로 땅에 새겨진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터무니없는 삶이란 땅과 무관한 삶이다.'이라는 내용은 건축을 '터'로부터 느끼고, 읽고,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이라는 그의 건축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지문'이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렇다 모든 땅에는 과거의 기억이 손글과 지문(指紋)처럼 남아 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지문이 있듯이 모든 땅도 고유한 무늬(地紋)를 가지고 있다. 더러는 자연의 세월이 만든 무늬이며, 더러는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연속적으로 새긴 무늬이다. 이는 우리가 땅에 쓴 우리의 기록이며 이야기이다. 따라서 땅은 장대하고 존엄한 역사서이며, 그래서 귀하고도 귀하다. 이를 지문(地文, Land-script)이라고 하자...」라고...

그렇다,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건축설계를 하면서 얼마나 '땅의 장대하고 존엄한 역사'에 대해 고민하였던가. 아니면 '터'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진정 바라는지 생각하였던가. 이런 중요하지만 잊고 지냈던 의문을 '지문'이라는 책을 통하여 접해보길 바란다.

박홍근 건축사



법/령/소/식

광주광역시 주차장조례

1월 15일 개정 시행

1. 제안이유

- 주택법 등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 주차장법 등의 개정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과 행복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다가구·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2. 주요내용

- 도시형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마련(안 별표2)
- 원룸형 : 세대당 0.5대 이상, 기숙사형 : 세대당 0.3대 이상
- 전용면적 30㎡이하 다가구·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 별표2)
 - 세대당 1대 → 0.5대 이상
- 노외주차장 설치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규정(안 제10조의3)
 -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 규모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
-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세분화(안 별표2)
 - 종교시설, 운수시설, 장례식장, 수련시설, 공장, 발전시설, 창고시설 추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1월 1일 개정, 시행

1.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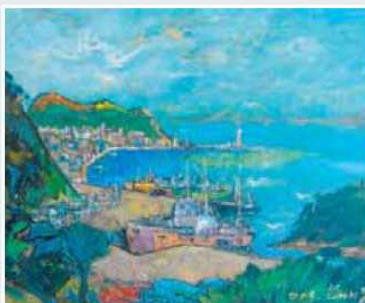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09.7.7)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2.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의 해제기준면적(1천㎡) 설정(안 제19조의 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허용(안 제23조)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장의사, 종교사는 제외
-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내 기반시설 규정(안 제25조)
 -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및 폐기물 시설
- 간폐율 완화(안 제67조)
 - 계획관리지역 내 중층시 간폐율 : 40%~50%
 - 자연녹지지역내 원원지 간폐율 : 20%~30%
 -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의 간폐율:100분의 20 이하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 증원 및 회의록 공개시한 단축(안 제77조)
 - 위원수 증원 : 20~25인 - 25인~30인
 - 회의록 공개시한 단축 : 1년 이내 - 6개월
-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 태양광 설비 허용(안 별표3)
-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물 층수 상향 및 평균층수 도입
 - 단일 건축물 : 15층 이하 - 18층 이하
 - 2개이상 건축물 : 평균 18층이하

신영은 건축사기자 (archsy@naver.com)

건축사 Gallery



완도 바다

仁者樂山 知者樂水 (요산요수)

완도바다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물과 물이 만나고
구름도 비에 젖었습니다.
자연은 참 좋습니다.

김유지 건축사

Photo



한 겨울에도 푸르른 소나무처럼...

(2010.1 경주 내물왕릉 주변 소나무 숲)

촬영, 신영은 건축사 기자

전북건축사회, 유류비 지원 사회사업 시행



전북 건축사회에서는 지난 1월 15일(금) 전주 시 완산구 효자동 관내 저소득층 10여 세대에게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이번 유류비 지원은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용 유류(상품권)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람 나눔을 실천하여 전문가격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시행하였다.

특층 10여 세대에게 유류비를 지원하였다. 이번 유류비 지원은 관내 불우한 이웃에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난방용 유류(상품권)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람 나눔을 실천하여 전문가격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코자 시행하였다.

광주건축사 미술동호회 전시회 개최



광주 건축사회 미술동호회가 주최한 미술 전시회가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광주 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회의 개막식은 1월 21일 6시에 미술동호회 회원 16명과 내,외빈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외빈 소개, 송광운 북구청장 환영사, 김유지 회장 인사말, 심상봉 부회장 축사, 테이프 컷팅식,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사회 미술동호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 밝혔다. 이어 김유지 미술동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의 감성과 개성을 가미하여 자연을 자연보다 더 아름답게 그려, 내적으로 오래오래 간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림을 그리며 느낀 그 아름다움을 건축을 하는 데 사용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심상봉 광주건축사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전시되는 작품전이 이곳을 찾은 시민들과 건축사들의 소통 및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2주간에 걸쳐 열린 이번 전시회는 36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광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송광운 북구청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곳 북구청에서 12번째 전시회가 열려,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예술적 기쁨을 선사해주신 것에 대해 광주건축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

-2010년 3월 5일(금)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릴 예정-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제23회 정기총회가 2010년 3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광주 동구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행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유금배, 남구청 건축과 신상균, 서구청 건축과 이정승, 삼성전자 (주) 광주지점장 김용성 님께 감사패 및 공로패 수여식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금번 정기총회는 광주건축사회 임원 및 대의원현황, 회원현황, 전회 회의록 승인, 주요업무보고, 부의안건 순으로

건축사 강남구,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장 취임

지난 1월 25일 광주 라마다호텔 3층에서 열린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지회 정기총회에서, 강남구 수석부회장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2012년 1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날 회장선출과 함께 차기수석부회장에 박익수 교수(호남대 건축학부), 부회장에 정광민 건축사(건축사사무소), 감사에 이순미 건축사(건축사사무소 미가온), 사무국장에 남송진 교수(동아인재대학)가 선출됐다.

강남구(강남 건축사사무소)회장은 전남 영광출생으로 조선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나무심는 건축인 대표, 광주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을 맡고 있으며 향후

곽승국 전담기자(ksk830710@hanmail.com)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전국 공모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 참여기회 확대-

광주광역시 4일, 공공디자인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감에 따라 위원회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공디자인위원회 위원을 전국적으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과 같다. 디자인분야 4인, 건축분야 3인, 도시경관분야 3인, 조경분야 2인, 야경분야 2인, 색채·조형예술 등 분야 2인이다. 서류 접수기한은 2월 26일까지이며, 위원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 선정하고, 그 결과는 3월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인원은 총 16명으로서 건축, 도시계획, 조경, 조형예술, 색채, 환경, 조명, 광고물 및 디자인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는데 분야별 모집인원은 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광주시 도시디자인과(☎062-613-4871)에 문의하면 된다.

News 전남 건축계 동정

- *입회**
 - 1월 4일 정집문 건축사 (다존 건축사사무소/여수시 신기동 건축사사무소)
 - 1월 14일 최병구 건축사 (에이아이 건축사사무소/화순군 화순읍)
- *전입**
 - 12월 16일 구 협 건축사 (성보 건축사사무소/영광군 영광읍)

News 전북 건축계 동정

- *입회**
 - 1월 8일 류충렬 건축사 (금만 건축사사무소/김제 서암동)
- *변경**
 - 강미현 건축사 (소재지 변경) (건축사사무소 미.예.감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 *부고**
 - 1월 15일(금) 조기순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초가건축) 장모상

News 광주 건축계 동정

- *입회**
 - 1월 4일 백철우 건축사 (디바 건축사사무소)
- *전출**
 - 1월 4일 정집문 건축사 (여수전출)

- *재입회**
 - 1월 4일 정영삼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도현)

News 광주광역시청 건축계 동정

- * 1월 29일 인사발령**
- 장상근**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 건설교통국 국장
- 김정운** 광주광역시 지방기술 서기관 →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 최현주** 환경녹지국 국장 → 자치행정국 국장
- 문인** 자치행정국 국장 →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 문봉주**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 문화체육정책실 실장
- 양희주** 광주광역시 지방 부이사관 → 환경녹지국 국장
- 이기신** 도시마케팅본부 본부장 → 서구 지방부이사관
- 강왕기** 도시철도본부 본부장 → 도시마케팅본부 본부장
- 이기수** 상수도사업소장 → 중앙 행정교육 파견

News 광주 동호회 소식



- 골프 동호회
- 낙시 동호회
- 등산 동호회
- 미술 동호회
- 바둑 동호회
- 축구 동호회

광주건축사회 낙시 동호회는 1979년 모체인 '전남 건축사 낙시회'가 행정구역 변경으로 '광주 건축사 낙시 동호회'로 개편 됐다.

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고 관찰력과 집중력, 순발력으로 기다린 얼굴을 대하면서 화원(조사)들과 친목을 다진다.

연례행사인 '전남,북 건축사 친선 낙시 대회'가 1990년 6개 시·도지부가 참여한 '영·호남 건축사 낙시 대회'로 발전하여 7년간 이어오다 각 지방 사정으로 중단되었다.

도시의 여수선함을 떠나 경관이 좋은 자연 속에서 '찌'를 보노라면,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찌든 머리를 정리케 하여, 백지 상태에서 새로운 자기의 청사진을 만들 것이다. 庚寅年에도 시조회를 시작으로 남회 시까지 출조 할 것이며, 타 시도 낙시 동호회인과의 교류도 다시 이루어 보려한다.

낙시동호회는 매년 꽃피는 4월 시조회를 시작으로 11월 남회까지 깨끗한 물과 경관이 좋은 남도의 저수지, 수로, 바다에 출조하여 미술인 고기들과 '찌'

김보현 건축사 (광주 낙시동호회 회장)

News 전북 동호회 소식



- 골프 동호회
- 등산 동호회
- 축구 동호회

전북 건축사회 등산동호회 강신중 회장과 11명의 회원이 지난 1월 8일 무주군 적상면 적상산(1,036.0m)에서 등반 모임을 가졌다.

여러 산을 등반했으며, 향후 산행계획은 2월중 함양백운산을 시작으로 대둔산, 진안고산, 화문산 등의 등반이 예정되어 있다.

2008년, 전북건축사 25명으로 구성되어 발족한 등산동호회는 전북건축사회 친목동호회 사업의 일환으로 출발하여 2010년 현재 27명의 건축사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올해 분기별 산행 모임에서 격월 모임으로 변경 시행하고 협회 차원의 모임은 적극 참여하며 회원참여 회비를 징수하여 재정 및 회원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연을 사랑하는 전북 건축사 등산동호회는 이번 적상산 등반 외에도 운암산, 덕태산 모악산, 천반산 등 전국의

강신중 건축사 (전북 등산동호회 회장)



품질경영시스템 ISO9001 획득

www.bs-base.co.kr

탄탄하고 경제적인 기초공사 - 반석기초이앤씨(주)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팽이기초공법 (6연식형 / 현장타설형)

팽이기초공법
6연식



동신고 체육관



군산인력개발원



전남대 학군단

팽이기초공법
현장타설형



잠실중학교



106포병대대



서정동 주민센터

마이크로파일공법



장성 문화예술회관



연천초

그라우팅 공법



반석기초이앤씨(주) 대표이사 문형록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87-1 아이비타워 108호 TEL.031)577-1673 FAX.031)577-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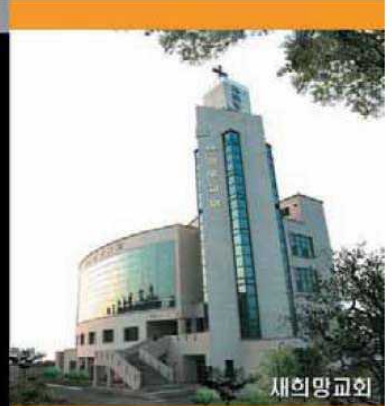
" 믿음 과 정성이 건강한 교회건축의 원동력"

교회건축 외길로 교회와 일치되는 감정이입을 통해
심미감과 생명감있는 예술작품을 창조하고자
"Art Director" 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은광교회 수완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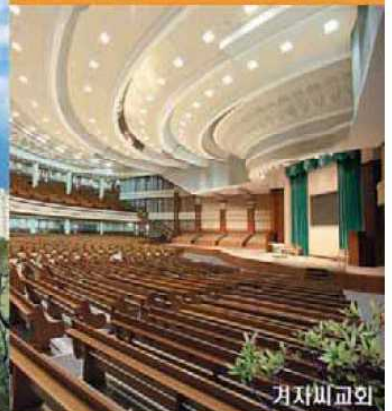
설계부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디자인건축과 인테리어를
통합시공으로 최고의 성전건축은 물론 공기단축과
공사비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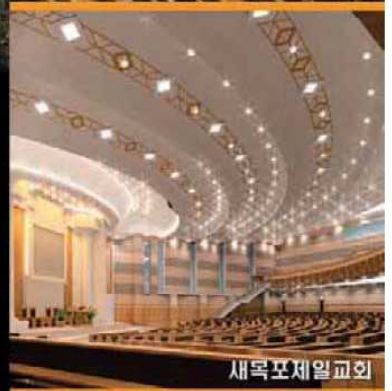
새의망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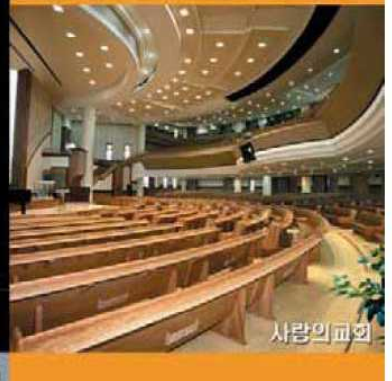
은파교회



겨자씨교회



새록포제일교회



사람의교회

경/력/사/원/모/집

재용직급 : 건축과(차)장(경력10년이상)
건축기사 (경력 3년이상)
인테리어기사
자격요건 : 자격증소지자
담당자 : 인사관리팀 정문희대리
e-mail : sbmh77@hanmail.net



▲ 이심점주입건설(주)
& 이원철인테리어디자인

ARCHITECTURE · INTERIOR DESIGN · GRAPHIC ART · DISPLAY DESIGN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934-10 (4F) TEL_062_521_1030, FAX_062_521_0273

신촌교회/예수안과교회/부산동거자교회/동탄새빛교회/무안성서교회/대전복음교회/목포사향교회/서흥복음교회/양진교회/동천교회/서남교회/동남가정교회/예수복음교회/성당교회/광안교회/해운교회/동문교회/대우교회/남부교회/목포주요교회/서성교회/목포연수교회/신창가정교회/새벽바람교회/서쪽모퉁이교회/안남교회/양산교회/양은교회